

04

부산 야구 협회

야구가 한국에 정식으로 도입된 것은 1905년으로 당시 선교사로 온 미국인 질레트(P. Gillett)가 황성기독교청년회 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친 것이 시초였다. 1906년 2월 11일 황성기독교청년회와 덕어(독일어)학교 사이에 한국 최초로 야구경기가 열렸으며, 덕어학교팀이 승리했다.

1920년 11월 4일부터 3일간 조선체육회가 주최하는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가 5개 학생팀과 5개 실업팀이 참가한 가운데 배재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후 1946년 3월 18일 조선야구협회가 출범했으며, 1954년 10월 대한야구협회로 이름을 바꿨다. 그해 12월 아시아야구연맹(BFA)에 가입했으며 1972년 국제야구연맹(IBAF) 회원국이 됐다. 1979년 1월 중·고교, 대학, 실업연맹 등을 해체한 뒤 협회에 흡수시켰으나 1991년 규약 개정으로 산하에 리틀야구연맹과 여자야구연맹을 두게 됐다.

한국은 1982년 서울에서 열린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고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1998 방콕아시아경기대회,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10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3개 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다. 2008년 제29회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는 쿠바, 미국, 일본 등을 물리치고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부산에서 야구는 1905년 을사늑약 이전부터 초량구락부라는 청년클럽이 활동했으며, 1927년에는 부산운동장(현 구덕운동장)을 조성해 6000명 수용 규모의 야구장을 운영했다.

이후 부산 야구는 경남고, 부산고, 부산상고 등 전통의 명문에서 알 수 있듯 학교 야구가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팀은 개성고(부산상고)이다. 창단시기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1921년 제7회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참가 기록이 존재한다. 1921년 해외팀 자격으로 조선 야구팀 중 부산상고가 최초로 일본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조선 최초 일본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부산상고는 성적 또한 2회전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조선 야구의 도입 시기에 일본 선수권에 8강의 성적은 대단한 성적이었다. 이후 경성중, 휘문고, 부산중, 평양중 등 26회 대회인 1940년까지 조선의 학교가 참가했던 기록이 일본 측에 남아 있다.

경남고는 1945년 창단과 함께 바로 우승권에 올라서 한 번도 강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현직 회장

배만호
과장빌딩 대표
- 1976
부산공고 야구부 감독
- 1977
국가대표 야구
상비군 감독
- 2005~현재
부산야구협회 회장

역대 회장

제1대	이동훈	1946.01~1947.12
제2대	김예준	1948.01~1949.12
제3대	김형두	1953.01~1958.12
제4대	양학진	1959.01~1961.12
제5대	김귀암	1962.01~1964.12
제6대	양학진	1965.01~1966.12
제7대	송규원	1967.01~1968.12
제8대	정수봉	1997.01~1970.12
제9대	김한민	1971.01~1973.12
제10대	김용관	1974.01~1977.12
제11대	김근준	1978.01~1984.12
제12대	정현욱	1985.03~2000.01
제13대	정호기	2000.01~2005.01
제14대	배만호	2005.01~현재

명문 중의 명문이다. 초기 경남고 야구를 이끈 선수는 장태영으로 1947년 청룡기-황금사자기 동시 우승, 1948년 청룡기-황금사자기 2년 연속 동시 우승을 이끈 전설이다. 1967년에는 경북고의 전 관왕을 저지하면서 1955년 우승 이후 12년 만에 황금사자기에서 우승했는데, 당시 주역은 조흥기와 허구연이었다. 이후 경남고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는 최동원, 이대호 등이 있다.

1947년에 창단한 부산고는 지역의 맞수인 경남고와 부산상고에 비해 야구부의 활성화가 늦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화려한 역사를 시작했다. 1962년 투수 김소식의 활약으로 첫 우승을 차지한 이래 이듬해의 장순조, 1960년대 중반의 김철오 등으로 정통파에이스의 계보를 잇다가 1971년 롯데자이언츠의 원년 1루수로 활약하는 김정수가 당시의 에이스로 나서면서 전국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를 시작으로 대통령배, 청룡기, 봉황기, 황금사자기 등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수차례 차지했다. 부산고 출신으로는 양상문, 박동희, 염종석, 손민한, 백차승, 추신수 등이 있다.

현직 회장 및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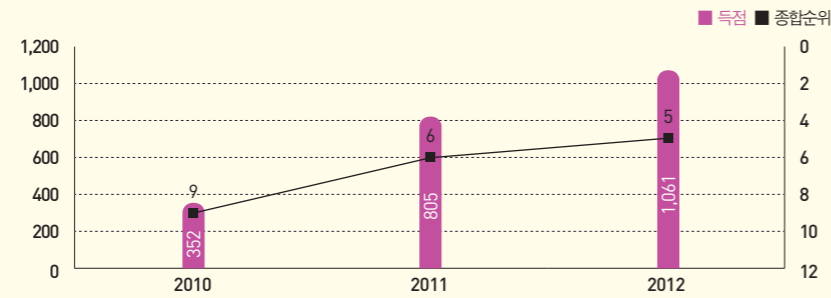
협회 직위	성명	소속
회장	배만호	과장빌딩 대표
	서무극	코아라 대표
부회장	장재환	HIT SPORTS 대표
	정규환	농장 경영
	주태진	신풍산업 대표
부회장 겸 전무이사	양준호	자영업
경기이사	신성규	전 점보산업 대표
기록이사	박인규	전 야구인
	김동호	현대목재리사이클링 상무이사
	박정식	요식업
	서처록	팍스글로벌 대표
이사	윤영수	자영업
	이봉수	MG SPORTS 대표
	이형	전 경성대학교 감독
감사	최화곤	동방선박 이사
	노태주	노태주회계사무실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10	21/512	6/120	7/158	5/137	3/97	0/0
2011	22/581	6/135	8/206	5/144	3/96	0/0
2012	23/617	6/132	9/238	5/155	3/92	0/0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3년)

연도	종합순위 (득점)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10	9(352)	0/0/0	-	-	5(352)
2011	6(805)	0/0/1	3(805)	-	0(0)
2012	5(1,061)	0/1/0	9(0)	-	2(1,061)



05 부산 테니스 협회

현직 회장
김영철
 영진기계 대표
 -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테니스연합회 회장
 - (사)한국아마추어 테니스협회(KATO) 회장
 - 부산광역시 테니스연합 제2대~(현)4대 회장
 - 테니스를 사랑하는 모임 9대 회장 역임
 - 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에 테니스의 연식종목인 정구가 먼저 보급됐으며, 경식종목인 테니스는 뒤늦게 보급됐다. 부산에서는 1953년 대산주조 정구장에서 김교성(금성사 공장장), 전계원(전 대한테니스협회 전무), 최경록(2관구 사령관), 최형집(전 대한테니스협회 이사) 등 정구를 즐기던 몇몇 인사들이 세계적인 추세였던 테니스를 하자는 뜻을 모아 시작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1956년에 구덕테니스장(현재 구덕실내체육관 자리)에서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회가 열렸으며, 1958년에는 동래고가 처음으로 테니스부를 창단했다. 이듬해인 1959년 제4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김두환(전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우승을 하고, 동래고 외에도 부산여고와 남성여고, 경남고, 부산공고, 부산상고, 부산대에서도 1~3명 정도의 선수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부산의 학생테니스는 일약 발전의 조짐을 보였으나, 후속 선수 발굴에 실패하면서 추가적인 팀 창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1963년 부산의 정부직할시 승격, 부산시체육회의 설립 직후인 1964년과 1965년 이광휘(전 서울은행 지점장), 박석규(전 국가대표), 양해식(현 부산테니스협회) 등이 주축이 된 남고부가 전국체

주요 연표

일자	내용
1953.03.01	부산에서 최초로 테니스를 시작
1958.03.01	부산 최초 남자고등부 동래고 테니스팀 창단
1964.03.01	부산·대구 도시대항전(학생 및 일반부) 개최
1965.03.01	남중부 동래중 테니스팀 창단
1968.03.01	브니엘 여중고 테니스팀 창단
1972.03.01	동래여중·고 테니스팀 창단
1972.06.01	테니스장 삼화 13면, 대연 16면 사설코트 건설
1973.03.01	남고부 경남공고 테니스팀 창단
1975.04.21	전국 종별 테니스대회 부산 개최
1976.02.01	남자일반부 (주)삼화 실업팀 창단
1978.03.01	남고부 부산동고 테니스팀 창단
1982.03.01	건설사와의 자매결연 통해 우수선수 장학사업(매년 1500만 원) 전개
1983.12.01	여자일반부 대양고무 실업팀 창단
1990.03.01	여자고등부 동호여상 테니스팀 창단
1991.03.01	여자일반부 금정구청 실업팀 창단
1991.05.12	부산·후쿠오카 정규 교류전(남녀 각 20명) 개최
1992.03.01	남자고등부 동명공고 테니스팀 창단
1995.01.01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테니스 장학회 설립
1998.03.01	남자일반부 삼성증권 부산팀으로 영입
1999.04.26	부산오픈 한국 남자테니스대회 개최
2003.03.01	여자고등부 남산고 테니스팀 창단
2003.06.07	부산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개최
2008.03.01	부산테니스협회 유소년 장학사업(매년 1000만 원) 전개
2012.03.01	여자대학부 영산대테니스팀 창단